

# 4-6세기 고구려의 지방운영체제에 대한 일고

김선숙

영동대학교 강사, 한국고대사 전공

1997-sun@hanmail.net

I. 머리말

II. 평양 이남 및 이동 방면으로의 진출

III. 4-6세기 고구려의 지방통치체제

IV. 맺음말

## I. 머리말

처음 압록강 중류지역에서 건국한 고구려는 점차 그 영역을 넓혀나가 4·5세기에 이르르면 그 영역이 요동을 포함한 만주와 연해주지역은 물론 평양 및 한강유역의 한반도 남부지역으로까지 확대되기에 이른다. 그런데 고구려의 지방통치는 대체로 초기에 나부체제를 세력기반으로 하는 제가(諸加)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점차 활발한 정복활동을 통해 고구려의 영토가 확대되면서 각 단위 집단은 성과 곡으로, 그 내부의 작은 집단들은 촌으로 편제되었으며 정복활동을 통해 고구려 통치체제에 편입되어 공납적 지배를 받던 속민집단도 3세기 말부터는 점차 각 읍락이 성·곡으로 편제되고 지방관이 파견됨으로써 직접적인 영역지배를 받게 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고구려의 성과 곡 단위에 파견된 지방관으로는 4·5세기에 태수 또는 수사(守事)가, 6세기 이후에 처려근지(處閭近支) 또는 도사(道使)가 있다. 그런데 5세기 이후 6세기대에 걸쳐 지방조직이 체계적으로 정비되면서 왕도인 내평(內評) 5부와 지방인 외평(外評) 5부에는 육살(耨·褥薩)을 두고 대체로 이들이 큰 성들을 다스렸으며 안시성·백암성·비사성과 같은 기타 고구려의 작은 성들은 처려근지와 그 밑의 가라달(可邏達), 누초(婁肖) 등이 담당하였다. 고구려에서는 평양성과 국내성·한성 등 3경의 도성제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고구려의 도성은 상부(동부)·하부(서부)·전부(남부)·후부(북부)·중부(내부) 등 5부제로 운영되었다.

물론 고구려 지방통치구역으로서의 5부의 존재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이를 대체로 인정하는 분위기이며, 고구려의 지방행정조직은 성을 단위로 하여 중층적으로 편제하여 구성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구려의 지방지배체제 문제와 관련한 종래의 연구 현황을 살펴보면, 1970년대 말부터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고구려 초기부터 말기까지의 지방통치체제의 구조와 운영, 5부 체제의 존재, 군현제의 도입, 낙랑과 대방고지의 지배 문제, 원고구려민과 복속민의 지배방식 등이 다방면에서 검토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이 가운데 특히 이 글에서 관심을 갖고 검토하고자 하는 내용은 4·6세기 대 고구려의 지방운영체제다. 이는 현재 필자가 하고 있는 연구의 대주제

인 고구려의 한강유역 지배형태를 고찰하는 데 매우 중요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이미 관련 연구자들의 몇몇 견해가 나온 바 있다.

그러나 이 역시 관련 연구자들 간의 의견차가 있어 이를 다시 검토하여 필자 나름대로의 시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아래에서는 4-6세기대 고구려의 지방운영체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검토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 장에서는 평양 이남 및 이동 방면으로의 진출을 간략히 살펴보고, 두 번째 장에서는 4-6세기 고구려의 지방통치체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4-6세기 고구려의 지방운영체제가 곧 동시기 고구려의 지방통치를 위한 제반 제도를 통해 행해짐으로써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첫 번째 장에서는 고구려가 한강유역으로 진출하는 계기 내지 배경, 두 번째 장에서는 한강유역 지배체제와 관련하여 4-6세기 고구려의 지방통치체제를 살펴본다.

## II. 평양 이남 및 이동 방면으로의 진출

실질적 의미에서 고구려의 영역이 확대된 시기는 고대국가의 정비과정 에 따라 울령반포리는 법적 질서가 마련된 4세기 이후로 이해되고 있다.<sup>1)</sup> 그러나 영역이란 법적 질서가 마련되기 이전부터 국가나 읍락의 규모에 상관없이 인간사회가 성립됨과 동시에 크고 작은 전쟁을 통해 주변으로 확장되는 변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역확장 과정과 한적(漢的) 질서인 울령의 성립을 직결시켜 이해할 필요는 없다.

고구려는 기원 전후로부터 4세기대까지 흑룡강 상류와 연해주 및 혼강과 태자하 상류, 소자하 상류(新賓), 애하유역(丹東) 등을 거쳐 함경남도 해안과 대동강유역까지 세력을 확대하였다.<sup>2)</sup> 고구려는 미천왕대인 14년(313)과 15년(314)에 낙랑군과 대방군을 각각 침입하였다.<sup>3)</sup> 미천왕은 본격적으로 요동의 서안평을 공격하여 점령하고 이어서 낙랑군과 대방군을 각각 침입한 것인데, 4세기 접어들면서 중국대륙에서는 소위

1) 신형식, 『高句麗史』(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3), 200-202쪽.

2) 위의 책, 202-203쪽.

3) 『三國史記』 卷17, 高句麗本紀, 美川王 14年 冬10月 및 15年 秋9月條.

영가(永嘉)의 난이 벌어지자 선비족 모용외가 창려(昌黎) 대자성(大棘城)에서 들고 일어나 요동을 사이에 두고 모용씨 세력과 대치하였다. 그러다가 고국원왕 12년인 342년에 이르러 그의 아들인 모용황(皝)이 병사를 이끌고 고구려를 대대적으로 침공함으로써 고구려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sup>4)</sup>

모용씨의 침략 이후 고국원왕은 343년에 궁실이 불타 훼손된 환도성으로부터 평양 동쪽의 황성<sup>5)</sup>으로 이거하게 된다.<sup>6)</sup> 이 평양성에 대해서는 동황성이라 하여 독노강변(禿魯江邊)의 강계 부근설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으나 『삼국사기』에 고려시대의 서경 동쪽 목덕산 가운데 있다고 기술되어 있고,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황성고지(黃城古址)’라는 표현이 있다는 점에서 황성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의 평양지역인 낙랑은 미천왕대에 고구려의 수중에 들어감으로써 고국원왕대에는 더 이상 군현세력으로서 존재할 수 없었다.

지금까지 발견된 중국계 인물들의 무덤은 대부분 황해도와 평안남도 평양지역의 낙랑 및 대방군지를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특히 한·위·서진 시대에 축조된 중국식 묘제인 전축분과 목곽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원전 1세기대로부터 기원후 4세기대 초까지 시행된 중국의 여러 나라 연호가 쓰인 유물이 발견되는가 하면 연호·기년을 정확하게 사용한 묘제도 존재하지만 중국에서 실제 사용된 연호·기년과 차이는 무덤이 존재하기도 한다.<sup>7)</sup>

이는 과거 낙랑군과 대방군이 설치던 지역에 현도군·낙랑군·대방군 등을 침략해서 사로잡아 데리고 온 포로들 및 양 군현의 멸망 전후에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지역에 그대로 남아 있거나 여러 나라 흥망을 거듭하던 중국의 대륙에서 정치적 목적이나 전쟁 등을 피해 망명한 인물들이 거주하였기 때문에 중국정세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제대로

4) 『梁書』 卷54, 列傳48, 高句麗條; 『三國史記』 卷18, 高句麗本紀, 故國原王 12年條.  
 5) 『新增東國輿地勝覽』 卷51, 平安道, 平壤府, 山川條. “木覓山在府東四里 有黃城古址一名綱城 世傳高句麗故國原王居丸都城爲慕容皝所敗移居于此.”  
 6) 『三國史記』 卷18, 高句麗本紀, 故國原王 13年 秋7月條.  
 7) 朝鮮總督府, 『古蹟調査特別報告』 第1冊(1919); 朝鮮總督府, 『古蹟調査特別報告』 第4冊(1927); 朝鮮總督府, 『昭和七年度古蹟調査報告』 第1冊(1933); 朝鮮古蹟研究會, 『昭和十二年度古蹟調査報告』(1938); 梅原末治·藤田亮策, 『朝鮮古代文化綜鑑』 3(1959); 전주봉, 『文化遺産』(1962-1963); 田村晃一, 『樂浪と高句麗の考古學』(同成社, 2001); 오영찬, 『낙랑군 연구』(사계절출판사, 2006).

접하는 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비록 이들이 고구려인과 다른 종족계통이고 출신 국가의 연호를 무덤 속에 남겼다고 하지만 이것이 곧 고구려의 행정적인 지배를 받지 않았다고 보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오히려 낙랑과 대방군을 몰아낸 뒤 가까운 지역에 성을 쌓고 왕이 이거하여 이들에 대한 감시와 행정지배를 수행할 수 있었을 것이다.

광개토태왕에 이르러서는 평양에 대한 지배를 더욱 공공히 한 뒤 백제와 중국대륙 간 중요 교통로이면서 요충지인 난공불락의 관미성을 비롯해 백제의 북비(北鄙)인 한수 이북의 마을 등 58성 700여 촌을 격파하고, 백제의 한성을 함락함으로써 백제왕의 항복을 받아내고 왕족과 신하 등의 많은 인질을 사로잡아 돌아갔다. 광개토태왕은 영락 20년(410)에 동부여를 정벌하게 되는데<sup>8)</sup>, 이 동부여의 위치에 대해서는 함경남도 영흥만 일대 등 의견이 분분하나 영흥만 일대가 동옥저의 터전으로서 태조대왕 4년(56)에 이미 고구려의 영역으로 편입된 바 있기 때문에<sup>9)</sup> 그 북쪽에 위치한 두만강유역으로 보는 의견<sup>10)</sup>이 타당하다.

동부여는 일찍이 북부여와 함께 고구려 건국 당시부터 존재했던 나라다.<sup>11)</sup> 동부여는 부모가 북부여 출신인 추모왕의 출생지로서 금와왕의 아들인 대소왕이 고구려 대무신왕과 전쟁을 벌여 패한 바 있다. 동부여가 패하고 대소왕이 죽음으로써 동부여는 고구려에 멸망당했다<sup>12)</sup>거나 통속되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sup>13)</sup>

그런데 광개토태왕은 백제의 여러 성을 함락시킨 후 동부여를 정벌하러 나섰던 것이다. 따라서 이 동부여는 당시까지 멸망하지 않고 오랫동안 고구려에 예속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서』에는 태왕이 동부여를 정벌한 이후에도 부여가 북위에 독자적으로 사신을 파견한 것으로 전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부여는 동부여라고 볼 수 없는데 아마도 모용씨의 계속되는 침략으로 인해 옥저로 피신한 송화강유역의

8) 「광개토태왕릉비」. “廿年庚戌 東夫餘舊是鄒牟王屬民 中叛不貢 王躬率往討 軍到餘城而餘城國駢[……] 王恩普處 於是旋還…….”

9) 『三國史記』 卷15, 高句麗本紀, 太祖大王 4年 秋7月條.

10) 이용범, 「고구려의 성장과 쇠」, 『韓滿交流史 研究』(동화출판공사, 1989), 92-106쪽; 이도하, 「고구려와 부여관계에 대한 재검토」, 『고구려의 역사와 대외관계』(서경, 2006), 196-197쪽.

11) 『三國遺事』 卷1, 紀異, 北扶餘·東扶餘條.

12) 『三國史記』 卷13, 高句麗本紀, 東明聖王 14年條 및 同書 卷14, 大武神王 4·5年條; 『三國遺事』 卷1, 紀異, 東扶餘條.

13) 『魏書』 卷100, 列傳88, 高句麗條.

잔존 부여세력들이 진(晉)의 도움으로 귀국하여 회복시킨 부여<sup>14)</sup>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동해안지역에는 옥저와 예가 자리 잡고 있었다. 옥저와 예는 후한대에 낙랑군의 동부도위에 속하기도 하였다가 후한 말에 고구려의 신속을 받았다.<sup>15)</sup> 이후 246년에 위 관구검의 침입으로 인해 고구려 동천왕이 남옥저로 피신한 일이 있었고 위군(魏軍)의 추격이 계속되자 숙신남계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로 인해 남옥저와 동예지역은 위군의 침략으로 토파(討破)당하면서 이때부터 일시적으로 위와 진의 간섭을 받았다.<sup>16)</sup> 옥저와 동예 고지에서서는 위에서 받은 불내예왕(不耐濊王)이란 인장과 진에서 받은 '선술선예백장(晉率善穢伯長)'이란 동인이 출토된 바 있기 때문이다.

고구려는 장수왕 42년(454)에 신라의 북변을 공격한 이후 계속해서 신라의 실직주성(悉直州城)과 호명 등 7성 및 과현(戈峴), 호산성(狐山城) 등을 함락시킨다.<sup>17)</sup> 475년에는 백제의 한성을 공격하여 성을 파괴하였는데<sup>18)</sup>, 학계에서는 고구려의 한성 함락 사건을 계기로 백제가 한강유역을 버리고 웅진으로 천도함으로써 아산만을 기점으로 충남 이남으로 영토가 축소된 반면 고구려가 한강 이남지역을 장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예성강유역의 수곡성(신계)을 백제가 공격한 일이 있으나 5세기에서 6세기 말까지 고구려와 백제의 접전이 독산성(충주)·도살성(천안)·금현성(전의) 일대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에 의거하여 당시 양국의 접경이 한강 이남 충청도 일원이라는 것이다.<sup>19)</sup>

물론 장수왕은 한성을 공파하면서도 한강유역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지 않고 돌아갔다. 즉, 장수왕은 백제 한성을 함락시키고 백제의 개로왕을 붙잡아 아차성에서 처형했지만 고구려 보루가 있는 아차산에 일부 고구려

14) 『晉書』卷79, 列傳69, 夫餘國條. “……至太康六年 爲慕容廆所襲破 其王依慮自殺 子弟走保沃沮 […] 明年 夫餘後王 依羅遣詣龕 求率見人 還復舊國 仍請援 龕上列 遣督郵賈沈 以兵送之 廆又要之於路 沈與戰 大敗之 廆衆退 羅得復國…….”

15) 『三國志』卷30, 魏書 烏丸鮮卑東夷傳, 東沃沮 및 濊條.

16) 『魏書』卷100, 列傳88, 高句驪條.

17) 『三國史記』卷3, 新羅本紀, 炤知麻立干 3·6·11年條 및 同書 卷18, 高句麗本紀, 長壽王 56年 및 77年條.

18) 『三國史記』卷18, 高句麗本紀, 長壽王 63年 9月條 및 同書 卷26, 百濟本紀, 文周王 卽位年(475)條.

19) 최중택, 「고고학상으로 본 고구려의 한강유역 진출과 백제」, 『백제연구』 28(1998), 140쪽.

군을 주둔시키고 되돌아갔던 것으로 보인다.<sup>20)</sup> 이는 『삼국사기』에는 고구려의 내침으로 인해 문주가 신라구원병을 이끌고 한성에 도착했을 때 장수왕이 이미 백제의 한성을 함락하여 파괴하고<sup>21)</sup> 개로왕을 죽인 뒤 8,000의 포로를 이끌고 돌아간 것으로 기술되어 있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아차성은 한강 북안에서 일차적으로 고구려군을 차단시키는 백제의 전략적 요충지였다.<sup>22)</sup> 아차성에 대해서는 충북 단양의 을아단성이나 강원도 이천군에 있는 성으로 추정하는 견해도 있으나<sup>23)</sup>, 광개토태왕이 수군을 이끌고 함락한 백제의 여러 성 가운데 인천으로 추정되는 미추성(彌鄒城)과 함께 아단성이 등장하므로, 이 아단성은 지리적 위치상으로는 지정학적으로 볼 때 한강유역의 아차산 보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장수왕 70년(482)에는 고구려의 조정을 받은 말갈이 백제의 한산성을 습격하여 300여 호를 사로잡아 돌아갔으며, 그 다음해인 483년에 백제의 동성왕이 한산성까지 사냥하러 나간 일이 있었다.<sup>24)</sup>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백제의 한성과 한산성은 각기 다른 성임을 알 수 있다.<sup>25)</sup> 엄밀히 따지면 한성은 평지에 세워져 방어와 거주를 겸용할

20) 박찬규, 「百濟 熊津初期 北境問題」, 『사학지』 24(단국사학회, 1991), 51쪽; 김영관, 「백제의 웅진천도 배경과 한성경영」, 『충북사학』 11·12합집(2000), 77-89쪽.

21) 풍납토성은 평지에 구축한 대형 성터로 너비 40m 이상, 높이는 11m를 초과하며 둘레가 3.5km에 이르는데, 성벽의 규모가 거대하고 성 안에서 왕실과 관리들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진귀한 유물, 그리고 특수한 용도로 사용된 건축유지 등이 잇따라 발굴된 바 있다. 특히 여기에서 주목되는 사실은 발굴 유물 가운데 시유 도제 솥을 포함해 이 유적에서 출토된 도기는 모두 고온에서 손상되었기 때문에 고구려군에 의한 왕성의 함락과 같은 화재로 인해 폐기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王志高, 「풍납토성의 세 가지 문제에 대한 시론」, 『동북아시아 속의 풍납토성』(2012), 55-71쪽.

22) 임영진, 「풍납토성의 역사적 의미와 연구과제」, 『동북아시아 속의 풍납토성』(제12회 한성백제문화제 국제학술회의, 2012), 16쪽; 이도학, 『아차산의 역사와 문화유산』(구리시·구리문화원, 1994), 42쪽.

23) 이인철, 「광개토태왕비를 통해 본 고구려의 남방경영」, 『광개토태왕비 연구 100년』(학연문화사, 1999), 730쪽.

24) 『三國史記』 卷26, 百濟本紀, 東城王 4年 秋9月 및 5年 春條.

25) 최몽룡과 권오영은 몽촌토성을 河南慰禮城으로 비정하고 漢城을 이성산성과 춘궁리 일대로, 漢山을 이성산성으로 추정하였다(「고고학적 자료를 통해 본 백제 초기의 영역 고찰」, 『천관우 선생 환역기념 한국사학논총』, 1985, 93-97쪽). 신회권은 백제 초기 도읍지로서 하남위례성인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이 한성이고 광주 고읍의 춘궁리 일대가 한산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풍납토성 발굴조사를 통한 하남위례성 고찰」, 『향토서울』 62호, 2002, 82-109쪽). 오순제는 하북위례성을 방학동토성에, 하남위례성을 하남시 고골에, 한산을 남한산성에, 한성을 남한산성과 하남시 고골 일대를 감싼 지역에 각각 비정하였다(「하북위례성과 하남위례성의 고찰」, 『향토

수 있는 일반성을, 한산성은 말 그대로 한산(漢山)에 축조된 군사용성을 의미한다. 백제에서는 개루왕 5년(132)에 북한산성을 쌓은 바 있으며<sup>26)</sup>, 백제가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한 371년에 한산으로 도읍을 옮긴다.<sup>27)</sup>

물론 이때의 한산은 한강 이남에 있던 남한산이 아니라 한강 서북에 위치한 북한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알 수 있다. 즉, 『삼국사기』 지리지 백제조에 의하면, 근초고왕이 고구려 남평양을 취해 한성에 도읍하였다고 한다.<sup>28)</sup> 이 한성은 근초고왕이 고구려와의 전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북한산 부근에 거처를 마련한 일종의 행궁으로 한산성, 즉 북한성이라고 볼 수 있다.<sup>29)</sup>

백제 근초고왕은 평양성<sup>30)</sup>을 공격한 2년 후에 개성에 있던 청목령을 축성한다.<sup>31)</sup> 그런데 이 청목령은 비교적 한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아신왕 4년(394)에 왕이 고구려 광개토태왕과 패수(溟水)에서 전투를 벌이기 위해 한수를 건너<sup>32)</sup> 청목령 아래에 이르렀으나 큰 눈이 내리는 바람에 많은 병사들이 얼어 죽는 사태가 벌어지자 강을 건너지 않고 바로 한산성으로 회군한 사실에서 유추해볼 수 있다.<sup>33)</sup> 고구려에서는 장수왕대에 국내성, 평양성과 한성 등 복수의 도성체제를 운영하고 있었다. 고구려의 삼성제(三城制)는 장수왕대에 북위의 원외산

서울』 62, 2002, 121-203쪽).

26) 『三國史記』 卷23, 百濟本紀, 蓋婁王 5年 春2月條.

27) 『三國史記』 卷24, 百濟本紀, 近肖古王 26年條.

28) 『三國史記』 卷37, 地理4, 百濟條. “…… 至十三世近肖古王 取高句麗南平壤 都漢城 歷一百五年…….”

29) 『三國遺事』 卷2, 南扶餘前百濟北扶餘條. “…… 至十三世近肖古王 咸安元年 取高句麗南平壤 移都北漢城 今楊州…….”

30) 최승택은 고구려시대의 한성이 황해도 신원군에 있는 장수산성과 그 부근에 위치하며 남평양으로 불렸고 4세기대부터 부수도로서의 기능을 하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구려 남부 부수도로서의 위성방위체계』, 『조선고고연구』 4호, 2000, 22쪽). 손영종 역시 백제가 공격한 평양성을 1984년에 발견된 황해도 신원 소재의 장수산성과 그 남쪽에 펼쳐진 도시유적으로 보았다(『고구려사』,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0, 175-179쪽). 김미경은 『東國輿地勝覽』에 載寧이 漢城으로 불렸다는 점과 고구려가 북한산군을 평양이라고 부른 것은 한강유역을 차지한 이후에 생긴 명칭으로서 북한산군이 평양이면 한성도 평양일 수 있으므로 재령을 남평양으로 비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고구려의 낙랑·대방지역 진출과 그 지배형태』, 『學林』 17, 1996, 32-33쪽).

31) 『三國史記』 卷24, 百濟本紀, 近肖古王 28年 秋7月條.

32) 여기에서의 漢水를 臨津江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김문수, 『한수의 개념과 고구려 남평양의 고찰』(구리문화원, 1995), 6-10쪽.

33) 『三國史記』 卷25, 百濟本紀, 阿莘王 4年 秋8月 및 冬11月條.



기시랑 이오(李敖)가 사신으로 왔을 당시 고구려의 영역이 요동에서 남쪽으로 1,000여 리 떨어진 곳으로서 동쪽으로는 책성, 남쪽으로는 소해에 이르고<sup>34)</sup> 북쪽으로는 옛 부여에 이른다고 언급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광대한 영토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통치체제라고 볼 수 있다.<sup>35)</sup>

백제는 온조왕 14년(B.C. 5)경 한강 이북의 위례성<sup>36)</sup>으로부터 한산(남한산) 아래로 도읍을 옮기면서 한강 서북에 성을 쌓아 한성민을 나누어 살게 한 일이 있었다.<sup>37)</sup> 이후 개루왕 4년(131)에 이르러 이 지역에 북한산성을 축조한 일이 있었다.<sup>38)</sup> 이 북한산성이 백제의 북성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남성은 한강 남안에 위치한 몽촌토성이 될 것이다.<sup>39)</sup> 아울러 한산성이 바로 남한산성이었고, 풍납토성이 왕성이었다고 생각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양주목의 옛 이름이 고구려 매성군이라 하며 불곡산과 삼각산, 도봉산, 아차산, 천보산 등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한다. 현재의 양주군 회천읍·양주읍은 분지의 형태를 띠고 있고 북쪽으로 신천이 흘러나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쪽과 서쪽, 남쪽 모두 산으로 가로막혀 있어 중요한 전초기지로서의 역할<sup>40)</sup>이 가능한데, 당의 장수 이근행이 675년경 신라군을 공격하기 위해 20만 대군을 주둔시킨 매초성은 현재의 양주군인 내소군으로서 옛 고구려의 매성현일 것으로 보인다.

34) 책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璵春이라는 설과 鍾城이라는 설 등 의견이 분분하지만 소해에 대해서는 대체로 京畿灣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사편찬위원회 편, 『中國正史朝鮮傳 譯註(1)』(1987), 529쪽.

35) 『魏書』 卷100, 列傳88, 高句驪條.

36) 조선시대 대학자인 古山子 金正浩가 저술한 『大東地志』(卷1, 漢城府條)에는 백제의 첫 도읍인 위례성의 옛 터가 혜화문 밖에 있음을 전하고 있으며, 일제강점기인 1915년(大正 4)에 조선연구회가 펴낸 『大韓疆域考』(卷3, 慰禮考)에도 百濟始祖 首鄒의 땅인 위례성이 北漢山城, 즉 漢陽城(京城)의 東北에 있음을 기술하고 있다.

37) 『三國史記』 卷23, 百濟本紀, 溫祚王 14年 秋7月條.

38) 『大韓疆域考』 卷3, 慰禮考.

39) 학계에서는 대체로 북성을 풍납토성으로, 남성을 몽촌토성으로 보고 있는데, 김정학은 北城을 이성산성 또는 풍납리토성, 아차산성(아차성) 중의 하나로, 南城을 남한산성으로 보았다(『서울근교의 백제유적』, 『향토서울』 39, 1981, 18쪽). 문헌과 축성사적 일반 이론을 적용해 위례성과 한성을 검토한 차용걸 역시 북성과 남성을 각각 이성산성과 남한산성으로 추정한 바 있다(『위례성과 한성에 대하여(1)』, 『향토서울』 39, 1981, 51쪽).

40) 양주문화원 편, 『양주-땅이름의 역사』 양주향토자료총서 제4집(양주군·양주문화원, 2001), 4-6쪽.

다.<sup>41)</sup> 그런 점에서 백제 근초고왕은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한 뒤 북한산 아래의 옛 위례성 자리인 북성으로 옮겨 거처하며 고구려군에 대비하여 지리적으로 가까운 청목령(개성)에 성을 쌓았다고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근구수왕 역시 재위 3년(377)에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문자명왕대에 들어와서는 한성을 중심으로 공방을 벌이고 이에 따라 고구려의 남경(南境)과 신라 및 백제의 북경(北境)이 변동하게 된다.<sup>42)</sup> 문자명왕 3년(494)에는 고구려군과 신라군이 살수에서 전쟁을 벌이는가 하면 견아성(문경)에서 고구려군이 신라군을 포위하자 백제군이 구원하러 오기도 하고, 문자명왕 16년(507)에는 고구려와 말갈이 백제의 한성을 공격하고자 황악에 주둔하기도 하는<sup>43)</sup> 등 예성강을 비롯해 한산성, 그 이남지역인 충청도 일원에서 삼국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게 된다.

이처럼 신라의 진흥왕이 충주를 비롯한 죽령 이남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기 전까지 고구려와 백제의 영역화 과정은 매우 유동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신라에서 진흥왕이 즉위한 이후 상황은 돌변하여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 간의 전쟁을 틈타 551년에 고구려로부터 죽령 이외 고현이내의 10군<sup>44)</sup>을 공취하고 이어서 553년에 북한산을 비롯한 백제의 동북지역을 차지하여 신라의 주로 만들어버린다.<sup>45)</sup> 이로 인해 고구려의 남쪽지역은 임진강 이북으로 다시 밀려나고 만다.<sup>46)</sup>

41) 『三國史記』卷7, 新羅本紀, 文武王(下) 15年條 및 同書 卷35, 地理, 漢州 來蘇郡條.  
 42) 5세기 말 고구려와 신라의 국경선은 문헌상에서 소백산맥을 경계로 하여 동해안지역으로부터 경상도 북부지역까지로 파악되지만 고고학상에서 고구려와 신라의 국경선이 소백산맥과 강릉지역을 잇는 선까지로 보는 견해가 있다. 조효식, 「고고자료로 본 5세기 말 고구려와 신라의 국경」, 『백제와 주변세계』(진인진, 2012).  
 43) 『三國史記』卷19, 高句麗本紀, 文咨明王 16年(507)條.  
 44) 신라가 고구려로부터 탈취한 10城 또는 10郡의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다. 다만 『三國史記』卷5, 新羅本紀 善德王 11年(642)에는 고구려왕과 김춘추 간의 대담에서 신라에게 빼앗긴 땅을 '竹嶺의 서북지역'이라 하였고, 同書 卷44, 居柒夫傳에는 '竹嶺以外高峴以內十郡'이라 하였다. 10군의 위치비정에 대한 그간의 논의와 연구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이 있다. 성원식, 「『大東地志』의 '十郡' 比定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6).  
 45) 『三國史記』卷19, 高句麗本紀, 陽原王 6·7年條; 同書 卷26, 百濟本紀, 聖王 31年條; 同書 卷4, 新羅本紀, 眞興王 11·12·14·16年條.  
 46) 이인철,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과정에 대한 고찰」, 『향토서술』 57호(1997), 29쪽; 서영일, 「6-7世紀 高句麗 南境 考察」, 『고구려연구』 11(2001), 30쪽.

### III. 4-6세기 고구려의 지방통치체제

#### 1. 내외평제와 3경 5부 및 성곡촌제의 시행

4-6세기대 고구려의 지방통치체제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고구려의 지방통치제도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그런데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는 고구려 초기에 「유기(留記)」 100권이 있었고, 영양왕 11년(600)에 태학박사 이문진이 고사(古史)를 요약하여 「신집(新集)」 5권을 만들었다고 하는 기사가 실려 있다.<sup>47)</sup> 따라서 이 책에는 고구려의 지방통치체제를 알 수 있는 상세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안타깝게도 현재 그 내용이 전해지지 않는다. 다만 『삼국사기』에서는 고구려본기 및 신라가 고구려로부터 빼앗은 지역에 대한 기술, 고구려인이거나 그와 관련된 인물들의 열전, 지금까지 발견된 고구려 관계 금석문, 중국사서의 역대 왕조와 고구려 관계 기사나 열전 등에서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 학계에서는 고구려 지방통치체제의 변화·발전 과정을 대체로 세 시기로 나누고 있다. 즉, 제1기는 고구려 초기부터 3세기대까지로 나부체제와 속민지배방식에 의존하는 간접통치 시기, 제2기는 4·5세기대 나부체제가 해체되고 성·곡을 단위로 직접적인 영역지배를 확대해가던 시기, 제3기는 6세기대로 일원적인 성단위 지방통치조직을 갖춘 시기로 보고 있다.<sup>48)</sup>

6세기대의 사실을 전하는 『북사(北史)』 고구려전에는 ‘부유내평오부육살(復有內評五部褥薩)’이란 기술이 있다.<sup>49)</sup> 이에 반해 『수서(隋書)』 고려전에는 ‘내평외평오부육살(內評外評五部褥薩)’이란 기사<sup>50)</sup>가 있다. 여기에서 내평과 외평은 전국을 왕도와 지방으로 구분한 행정체계로서<sup>51)</sup> 내평과

47) 『三國史記』 卷20, 高句麗本紀, 嬰陽王 11年 春正月條.

48)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5-삼국의 정치와 사회 I-고구려』(1996), 167-168쪽.

49) 『北史』 卷94, 列傳82, 高句麗條.

50) 『隋書』 卷81, 列傳46, 東夷 高麗條.

51) 백남운은 내평을 국내성으로, 외평을 한성으로 추정한 바 있으며(『조선사회경제사』, 범우사, 1989, 173쪽), 임기환은 고구려의 왕도인 장안성을 內評으로, 별궁인 안학궁성의 시가지를 外評으로 보고 있다(「고구려 평양 도성의 정치적 성격」, 『한국사연구』 137, 2007, 23쪽). 최근 평양의 안학궁과 대성산성 관련 조사보고와 고찰은 다음의 보고서가 참조된다(오강원, 『남북공동유적조사보고서』 고구려 일대 평양유적』 1, 고

외평 모두에 5부제가 시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내평은 곧 왕도 내지 왕기(王畿)로 판단되며 왕도는 3경을 의미한다.

『주서(周書)』 고(구)려전과 『북사』 고구려전에는 장수왕대의 평양성 외에 별도의 국내성과 한성을 기술하면서 고구려인들이 이를 3경이라고 불렀다는 내용이 있다.<sup>52)</sup>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볼 때 상·중·하·전·후부의 5부명은 3경의 행정구역으로서 5세기 이후, 곧 장수왕의 평양 천도 이후 3경의 도성제가 완성되면서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이 아닌가 한다.<sup>53)</sup>

최근 평양에서 발견된 「평양성석각(平壤城石刻)」에는 ‘한성하후부(漢城下後部)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sup>54)</sup> 이는 고구려 3경의 하나인 한성에 5부제가 실시되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sup>55)</sup> 그리고 『구당서』에는 고구려가 망하기 직전까지 전 지역에 걸쳐 5부의 지방행정체제가 시행되었음을 전하고 있다.<sup>56)</sup> 이로써 보면 고구려에서는 내평 외에도 외평이 존재하고 전국적으로 5부가 시행되었다고 생각된다.

고구려의 지방통치체도인 성과 곡, 촌제는 4세기대 이전부터 나부 체제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신대왕 2년(166)조의 다음과 같은 기사에 구산뇌와 누두곡이라는 지명이 등장한 점에서 알 수 있는데, 곡은 계곡 또는 산골짜기·시냇물 등을 의미하며 뇌 역시 여울·급류란 뜻을 갖는다.

…… 왕은 곧 구산뇌(狗山瀨)·누두곡(婁豆谷) 두 곳을 내리고 양국군(讓國君)으로 봉하였다. 명임담부(明臨答夫)를 국상으로 임명하고 작위를 더하여 폐자(沛者)로 삼아서 중앙과 지방의 군사를 담당하고 아울러 양맥부락을 거느리게 하였다. 좌·우보

---

구려연구재단, 2005; 『남북공동유적조사보고서』 고구려 안학궁 조사 보고서』 2, 고구려연구재단, 2006).

52) 『周書』 卷49, 列傳41, 高麗條.

53) 최희수, 「평양 천도 이후의 고구려 지방통치체도」,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0).

54) 「平壤城 石刻」. “…… 丙戌十二月 漢城下後部小兒文達 節自此西北行涉之…….” 한국고대사학회연구소 편, 『역주한국고대금석문-제1권 고구려·백제·낙랑 편-』(1992), 109-117쪽.

55) 평양성에서 발견된 석각의 명문 가운데 ‘部’라는 글자가 쓰인 용어에 대해 ‘平後四’·‘下後四’로 관독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글자의 관독이 불확실한 용례를 들어 고구려에서 部를 행정편제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 조우연, 「4-5세기 고구려 정치체제」, 『고구려연구』 28(2007), 140쪽.

56) 『舊唐書』 卷199, 列傳149, 東夷 高(句)麗條. “…… 高麗國舊分爲五部 有城百七十六戶六十九萬七千 乃分其地置都督府九 州四十二 縣一百 又置安東都護府以統之…….”

를 바꾸어 국상이라 한 것은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삼국사기』 권16, 고구려본기, 신대왕 2년 춘정월조)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는 뇌와 곡 이외에도 택(澤)·야(野)·수(水) 등의 글귀가 붙는 지명이 등장하는데 모두 곡과 동일한 행정구역명이라고 볼 수 있다.

신대왕대에 국상이 된 명입답부는 연나부(椽那部) 소속의 조의(阜衣)로 학정(虐政)으로 유명한 그 전왕인 차대왕을 시해한 자였다.<sup>57)</sup> 아울러 고국천왕 13년(191)에는 국정을 책임질 인물로서 각 사부(四部) 모두로부터 추천을 받은 동부인 안류가 을파소를 천거하면서 그의 출신을 ‘서압록 곡 좌물촌’이라고 한 점이나 산상왕의 소후(小后)가 주통촌 출신이라고 한 사실<sup>58)</sup> 등에서 고구려의 중앙정부는 각 나부 내의 곡과 촌을 파악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을파소의 출신에 대한 『삼국사기』의 기술에 대해 일부에서는 2세기 당시 고구려는 아직 나부체제가 유지되던 시기이므로 후대에 윤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고구려의 지방행정은 일찍부터 한(漢)과의 전쟁이나 외교 등을 통해 습득하거나 지형적 특성에 의거한 성과 곡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2세기 당시 각 나부 내에도 곡과 촌이라는 일정한 행정조직이 마련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여러 촌을 거느린 성과 곡에는 태수와 수·재라는 지방관이 파견되었다. 이 성과 곡은 산곡(山谷)으로 형성된 고구려의 지형에 맞춘 지방행정체제다.<sup>59)</sup>

태조대왕 46년(98)과 55년(107)에는 책성과 동해곡에 태수 또는 수가, 서천왕 19년(288)과 봉상왕 2년(299)에는 신성과 그에 소속된 곡에 각각 태수와 재가 파견되었으며, 미천왕은 재위하기 전 봉상왕의 살해 위협을 피해 압록강 일대에 숨어 지낸 일이 있었는데 그때 압록재가 등장하고 있는 점에서 알 수 있다.<sup>60)</sup> 이는 고구려의 중앙정부가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 각 나부에 부역을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인재들을 추천받는가 하면

57) 『三國史記』 卷15, 高句麗本紀, 次大王 20年(164)條.

58) 『三國史記』 卷16, 高句麗本紀, 山上王 13年(209)條.

59) 『魏書』 卷100, 列傳88, 高句麗條. “…… 其地東西二千里 南北一千餘里 民皆土著 隨山谷而居 衣布帛及皮…….”

60) 『三國史記』 卷17, 高句麗本紀, 西川王 19年(288)·烽上王 2年(293)·5年(296)·美川王 卽位年(300)條.

대의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군사를 징발하는 등의 국가적 대업을 수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체계였다.

또한 간접적인 지배를 수행하던 복속집단에 대해서도 고구려의 성과 곡으로 편제하고 여기에 지방관을 파견하여 직접 다스리고 있었다. 고노자가 북부소형(北部小兄)으로서 재와 대형으로서 태수에 각기 임명되어 파견된 신성은 북옥저지역에 위치한 동북 신성과 서북부 최변경의 요충지에 위치한 서북 신성으로 각각 위치해 있었다. 그런데 이들 지역은 과거 속민집단이 있었던 곳이다.

복속지역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는 교통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sup>61)</sup> 이는 광개토태왕대의 인물인 모두루의 묘지명에 '도성민곡민(道城民谷民)'이라는 구절이 보이는 점에서 알 수 있다.<sup>62)</sup> 또한 「모두루 묘지명」에는 '북부여수사'라는 관직명이 보이며, 5세기대 이후의 금석문인 「중원고구려비」<sup>63)</sup>에도 '고모루성수사'라는 관직명이 기록되어 있다.

고모루성은 옛 고구려의 지명으로 국원성이었다가 나중에 신라가 이 지역을 차지하면서 중원경으로 바뀐 충주지방을 가리킨다.<sup>64)</sup> 충주는 한강과 낙동강유역을 연결하는 지리적 위치의 중요성과 철산지의 분포로 인해 삼국시대부터 전략적 요충지로서 치열한 각축전을 벌여온 곳이다.<sup>65)</sup> 따라서 고구려가 마한에 이어서 백제의 영역이었던 충주지역을 차지한 뒤 국원성을 설치하여 고구려 남진정책의 거점도시로 삼았을 것이다.<sup>66)</sup>

그런데 수사의 임무는 주로 관할권역 안에서의 군사활동이나 병력과 물자동원 등으로, 설치 시기는 대규모 정복활동의 빈번한 수행으로 대량의 물자와 많은 병력을 수시로 동원해야 했던 광개토태왕대였을 것으로 보는 견해<sup>67)</sup>가 있다. 물론 북부여수사가 북부여 일대의 여러 성을 관할하

61) 여호규, 「1-4세기 고구려 정치체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7), 167-212쪽.

62) 고구려연구회 편, 『중원고구려비 연구』(학연문화사, 2000), 552쪽.

63) "…… □古牟婁城守事下部大兄耶……." 황수영 편저, 『韓國金石遺文』(일지사, 1976), 507-508쪽.

64) 김정배, 「고구려와 신라의 영역분제」, 『한국사연구』 61·62집(1988), 12쪽.

65)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충주 답평리 유적(중원경 추정지)』(2009); 장준식, 「국원성의 설치」, 『신라중원경연구』(학연문화사, 1988), 44-104쪽.

66) 장준식, 위의 책, 33-38쪽.

67) 김현숙, 『고구려의 영역지배방식 연구』(모시는사람들, 2005), 296쪽.

는 것이라면 고모루성수사는 고모루성에 파견되어 그 주변의 여러 성을 통괄하는 임무를 맡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군사활동이나 병력과 물자동원 등 군사상의 직접적인 업무는 「중원고구려비」에 보이는 ‘신라 토내당주(新羅土內幢主)’의 당주가 수행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수사는 그 관직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직(守職)의 하나로 여러 임무를 총괄하는 고위지방관이라고 볼 수 있다. 설치 시기는 지금까지 나온 관련 자료에 의하는 한 역시 고구려의 영역이 광범위해지는 광개토태왕대로 보인다. 그리고 이 비문에는 ‘전부대사자다우환노주부□덕(前部大使者多于桓奴主簿□德)’이라는 글귀가 있는데 중원비 발견 초기에는 ‘전부대사자다우환노주부도사향□(前部大使者多于桓奴主簿道使鄉□)’<sup>68)</sup>으로 판독함으로써 전부대사자인 다우와 환노주부도사인 향□으로 해석하여 환노를 환노부의 이름으로 파악하기도 하였다.<sup>69)</sup> 이후 학계에서는 주부도사의 ‘샤’자를 ‘덕’자로 다시 판독함으로써 전부대사자인 다우 환노와 주부인 □덕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나온 바 있다.<sup>70)</sup>

그런데 ‘전부대사자다우환노주부□덕’으로 보든 ‘전부대사자다우환노주부도사향□’으로 보든 이 부분에서는 전부대사자인 다우와 환노주부인 □덕 또는 도사 향□으로 해석함으로써 각각 전부와 환노라는 나부명과 대사자와 주부라는 관직을 지닌 다우와 또 다른 인물인 □덕 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2세기대인 고구려 차대왕 2년(147)경 여러 인물의 관작을 내리는 기사 속에는 각 나부명 뒤에 관직명과 인명이 나오기도 하고 나부명 뒤에 인명만 나오기도 한 점<sup>71)</sup>에서 이러한 전통이 중원비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환노는 환나와 같은 말이다. 우리나라 사서에는 ‘나’가 주로 쓰이고 중국 측 기록에는 ‘노’가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위 기사를 통해 고구려에서도 노와 나가 혼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는 4세기대 이후 더 이상 나부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나부체제는 해체되는 과정이거나<sup>72)</sup> 정치

68) 황수영 편저, 앞의 책, 507쪽.

69) 이종욱, 「고구려 초기의 지방통치제도」, 『역사학보』 94·95합집(1982), 86쪽.

70) 김창호, 「중원고구려비의 건립연대」, 『고구려연구』 10(2000), 346-347쪽.

71) 『三國史記』 卷15, 高句麗本紀, 次大王 2年條. “春二月 拜貫那沛者彌儒爲左輔 [...] 秋七月 左輔穆度婁稱疾退老 以桓那于台於支留爲左輔 加爵爲大主簿 冬十月 沸流那陽神爲中畏大夫 加爵爲于台 皆王之故舊.”

적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중원비에 의하면 4·5세기에도 여전히 나부의 존재가 확인되고 있다.<sup>73)</sup>

이와 함께 중원비에서는 전부(前部)라는 5부의 존재가 확인된다. 고구려에서는 4세기 이전부터 나부명과 함께 내부·동부·서부·북부·남부 등의 방위부명이 존재하였다.<sup>74)</sup> 이는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고국천왕 13년(191)조의 ‘사부가 모두 동부인 안류를 추천하자 왕이 그를 불러들였다’라는 기사<sup>75)</sup>와 서천왕 2년(271)조의 ‘서부대사자 우수의 딸을 왕후로 삼았다’라는 기사 속에서 엿볼 수 있다.<sup>76)</sup>

그런데 중원비에는 내·동·서·남·북의 명칭이 아닌 전부라는 부명이 사용되었다. 전부는 남부에 해당되며, 그 밖에 상부(동부)·하부(서부)·후부(북부)·중부(내부) 등이 있다. 중원비의 건립연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나, 학계에서는 대체로 5세기대에 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5세기대를 기점으로 방위부명에서 상·하·중·전·후부명으로 바뀐 것이 아닌가 한다. 「중원고구려비」에는 ‘신라토내당주라고 하여 당주라는 관직명이 보인다. 이 당주의 관등이나 성격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 없다. 그런데 『삼국사기』에는 각 지방에 파견된 관리로서 태수·수·재 외에 수사, 당주라는 관직명을 찾아볼 수 없으며, 재 아래의 관직명도 보이지 않는다.

이들 금석문을 보면 수사는 태수와 동일한 대형(大兄)의 관등을 지닌 인물이 임명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편에서는 태수와 수사가 동일한 성격의 관직명으로 4·5세기대의 고구려는 태수나 수사보다 상위의 지방관을 아직 마련하지 않았으며 그 이전 시기의 태수-재라는 연원적 형태로부터 시작하여 수사(도사)-가라달·누초의 2단계 지방통치조직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sup>77)</sup> 다른 한편에서는 태수와 재가 통치체계상 일정하게 설치된 관직이라면 수사는 필요에 따라 설치된

72) 임기환, 「고구려 집권체제 성립과정의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5), 21쪽.

73) 이종욱, 앞의 논문, 86-88쪽.

74) 『太平實字記』 卷173, 東夷 高句麗國條. “…… 又其國有五部 皆貴人之族也 一曰內部 則後漢時桂婁部也 二曰北部 則絕奴部也 三曰東部 則順奴部也 四曰南部 則灌奴部也 五曰西部 則消奴部也…….”

75) 『三國史記』 卷16, 高句麗本紀, 故國川王 13年 夏4月條.

76) 『三國史記』 卷17, 高句麗本紀, 西川王 2年 春正月條.

77) 임기환, 앞의 논문, 154쪽.



지방관으로 광개토태왕대를 거치면서 요하 방면, 송화강 방면, 두만강 방면, 대동강 방면, 한강 방면 등에 두고, 장수왕대 평양천도 이후 수사-태수-재의 3단계 통치체제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sup>78)</sup>

그런데 현존하는 관련 자료만으로는 4·5세기대 고구려의 지방통치체계가 2단계 내지 3단계의 지방통치조직이었을 것으로 보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과연 역사상 고구려의 대중국 관계 및 영역확장 과정에서 볼 때 4·5세기대 지방통치체계가 2단계 내지 3단계로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었을지 매우 의문스럽기 때문이다. 비록 1세기대의 사건이긴 하지만, 가령 『삼국사기』 태조대왕 46년(98)조에 의하면 왕이 책성에 이르러 군신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책성의 수리에게 물단을 차등 있게 나누어 주었다는 기사가 있다.<sup>79)</sup> 여기에서 책성의 수리는 성의 장관으로서 상위적인 태수 및 그 밑에 있던 하위직 관리를 가리킨다.

이 수(守)가 태수와 동급의 지방관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대형·소형 등 여러 형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수에도 태수와 일반적인 수리는 차등적 관직체계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될 뿐이다. 당주에 대해서는 고구려의 지방관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군사지휘관으로 보는 입장도 있는데<sup>80)</sup>, 『한원(翰苑)』(권30, 변이부 고려조)에는 무관을 대모달·막하·대당주라고 한 점에서 「증원고구려비」의 ‘신라토내당주’는 신라 영역 내에 주둔하던 고구려의 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고구려 각 지방의 행정관을 겸직한 태수나 재와 달리 신라의 경우처럼 고구려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기 어려운 지역에 파견되어 특별히 군사적 임무를 맡은 지방관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까지 4-5세기대 고구려의 지방지배체제는 전국이 5부로 나뉘고 주요 거점 성이나 큰 성 등에는 태수가, 그 밖의 성에는 일반적인 수의 수직(守職)이, 광범위한 지역에는 수사(守事)가, 곡에는 재(宰)가, 그 아래로 하급관린 이직(吏職)이, 그리고 군관인 당주 등이 임명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6세기대에는 큰 성(大城)에 중국의 도독에 비견되는 육살(尉薩·褥薩)이<sup>81)</sup>, 그 밖의 여러 성에 자사(刺史)에 비견되는 처려근

78) 최희수, 「고구려 지방통치 운영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8), 101-103쪽.

79) 『三國史記』 卷15, 高句麗本紀, 太祖大王 46年 春3月條.

80) 최희수, 앞의 논문, 102쪽.

81) 고구려에서는 都督이란 명칭을 사용하기도 했는데, 이는 「高慈墓誌」의 “…… 祖量本蕃任三品柵城都督位頭大兄兼大相…….”(『海東金石文字』 下冊)이라고 한 부분에서 찾을

지(處閭近支) 또는 도사가 파견되었고, 그 밑으로 요좌(僚佐)나 참좌(參佐)가 있어 업무를 나누어 맡았으며, 위장군(衛將軍)에 비견되는 대모달과 중랑장에 비견되는 말객(末客) 또는 말략(末若)이란 무관들도 파견되었다고 볼 수 있다.<sup>82)</sup>

『한원』에 의하면 그보다 작은 성들에는 장사에 비견되는 가라달이, 그 밖의 성에는 현령에 비견되는 누초가 각각 파견되었다고 한다.<sup>83)</sup> 그런데 『양서』에 의하면 고구려에서도 광개토태왕대에 장사·사마·참군관 등이 처음 설치되었음을 전하고 있다.<sup>84)</sup> 그리고 『송서』에 의하면 장수왕이 413년과 424년, 455년에 각각 장사 고익·마루·동등 등을 중국왕조에 파견했다고 한다.<sup>85)</sup> 그렇다면 고구려에서도 광개토태왕대는 물론 장수대에 이르기까지 장사와 같은 중국식 관직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진서』 직관지에는 제공 및 개부위종공자의 경우 그 속관에 장사 1인을 두며, 그중 가병자에게는 사마 1인을 증치하고 지절도독이 된 자에게는 참군 6인을 증치한다는 기사가 있으며<sup>86)</sup>, 『신당서』 백관지에는 장사가 십육위의 부관이었다고 한다.<sup>87)</sup> 따라서 장사는 삼공 등의 속관이었다가 후에 십육위의 부관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장사나 사마, 참군관 등의 관직명은 중국의 사서 외에는 국내 자료에서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sup>88)</sup>

수 있다.

82) 『舊唐書』卷199(上), 列傳149(上), 東夷 高(句)麗條. “……外置州縣六十餘城 大城置僑薩一 比都督 諸城置道使 比刺史 其下各有僚佐 分掌曹事……”; 『新唐書』卷220, 列傳145, 東夷 高麗條. “……大城置僑薩一比都督 諸城置處閭近支 亦號道使比刺史 有參佐分幹 有大模達比衛將軍 末客比中郎將……”; 『翰苑』卷30, 蕃夷部 高麗條. “高麗記曰 [···] 次末若比中郎將 一名郡頭 以大兄以上爲之…….”

83) 『翰苑』卷30, 蕃夷部 高麗條. “高麗記曰 [···] 又其諸大城置僑薩 比都督 諸城處閭 比刺史 亦謂之道使 道使置所 名之曰備 諸小城置可邏達 比長史 又城置婁肖 比縣令…….”

84) 『梁書』卷54, 列傳48, 高句驪條. “……安始置長史司馬參軍官 後略有遼東郡…….”

85) 『宋書』卷97, 列傳57, 高句驪條. “高句驪王高璉 晉安帝義熙九年 遣長史高翼奉表獻楛白馬 [···] 少帝景平二年 璉遣長史馬婁等詣闕獻方物 遣使慰勞之 [···] 世祖孝建二年 璉遣長史董騰奉表慰國哀再周 并獻方物…….”

86) 『晉書』卷24, 職官志14, “諸公及開府位從公者 [···] 置長史一人 秩一千石 [···] 諸公及開府位從公加兵者 增置司馬一人 秩千石 [···] 諸公及開府位從公爲持節都督 增參軍爲六人…….”

87) 『新唐書』卷49(上), 志39(上), 百官四上, 十六衛條.

88) 장사·사마·참군관 등의 관직은 국내용이 아닌 주로 중국왕조의 외교관계에서만 사용된 대외용인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국사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390-391쪽.

## 2. 주군현제의 도입 및 시행 여부

고구려의 지방통치체제에서 주군현제의 도입 시기 및 시행 여부 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기사는 없다. 다만 『삼국사기』 지리지의 고구려 관계 지명 기사 속에서 고구려의 주군현제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부분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삼국사기』 지리지에는 멸망 당시 고구려로부터 빼앗았다고 하는 164개의 주군현이 기록되어 있다.<sup>89)</sup> 여기에는 신라의 영역으로 편입된 한강유역 일대 구고구려 군현에 대략 16개의 군과 38개의 현이 소개되어 있다. 이들 군과 현은 고구려의 군현명이 그대로 신라의 주군현명으로 편제되는가 하면 고구려의 달(忽·達) 등으로 군현명이 붙지 않은 지명이 신라의 군과 현으로 각각 편제되기도 하고, 고구려에서는 현이었던 지명이 신라에서는 군으로 편제되기도 하였다.<sup>90)</sup>

그런데 『구당서』의 기사를 살펴보면, 고구려 멸망기 영역편제 내용을 단지 '5부 176성'으로 기록하고 있다.<sup>91)</sup> 이에 대해 임기환은 군현이란 명칭의 사용이 고구려 후기의 일시적인 사정이며 『삼국사기』 지리지에 나타난 고구려의 군현명이 통일신라시대의 관념을 반영하기 위해 신라의 군현조직을 기준으로 기술되었을 수 있기 때문에 고구려가 지배했던 당시의 실상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본 바 있다.<sup>92)</sup> 이에 반해 김락기는 고구려의 군현으로 기록된 지역 가운데에서 한강 이남지역, 특히 경기도 남부지역에 대한 그동안의 고고학적 발굴 성과 결과 현재 고구려의 유물·유적으로 볼 만한 것들이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고 백제의 미추홀처럼 홀로 대표되는 고구려계 지명 가운데에는 백제에서 오랫동안 사용한 지명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고구려가 지배한 지역이 아니라 구주(九州)라는 천하를 의미하는 관념의 소산에 의해 역사적 사실과

89) 『三國史記』 卷35, 雜志4, 地理2, 漢州·朔州·溟州條; 同書 卷37, 雜志6, 地理4, 高句麗條.

90) 『삼국사기』 고구려조 原典의 성립 시기에 대해서는 그 상한을 경덕왕 7년으로, 하한을 흥덕왕대까지로 보고 고구려조에 군현명이 붙지 않고 나오는 無邑格 지명의 경우 원전의 상태를 그대로 반영한 게 아니라 『삼국사기』 찬자의 移記 과정에서 행해진 무의식적이거나 고의적인 邑格 삭제의 결과라는 견해가 있다. 김태식, 「『三國史記』 地理志 高句麗條의 史料적 검토」, 『역사학보』 154(1997), 45쪽.

91) 『舊唐書』 卷199(上), 列傳149(上), 東夷 高麗傳. "高麗國舊分爲五部 有城百七十六……."

92) 임기환, 「고구려·신라의 한강유역 경영과 서울」, 『서울학연구』 XVIII(2002), 10-11쪽.

다르게 만들어진 것으로 본 바 있다.<sup>93)</sup>

그런데 『삼국사기』 지리지의 압록수 이북 미항(未降) 11성과 압록수 이북 이항(已降) 11성 지역에 대한 항목에서는 고구려의 주로서 북부여성주·신성주·요동성주·옥성주·다벌악주·국내주 등 모두 6개의 주를 전하고 있다. 이 가운데 북부여성주의 경우 4세기경 북부여수사가 파견된 바 있기 때문에 5·6세기대의 어느 시점에 전국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대성을 주로 편성하고 수사 대신 욱살 또는 도독을 설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는 주읍·주군·군읍 등의 표현이 보인다.

이를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 ㄱ. 5월에 왕이 졸본으로부터 돌아오면서 지나는 주읍의 가난한 자들에게 곡식을 한 사람에게 3곡씩 나누어주었다.(『삼국사기』 권19, 고구려본기, 안장왕 3년조)
- ㄴ. 3월에 왕이 졸본으로부터 돌아오면서 지나는 주군의 옥수 중 두 가지 사형죄를 제외하고 모두 풀어주었다.(『삼국사기』 권19, 고구려본기, 평원왕 2년조)
- ㄷ. 2월에 명을 내려 급하지 않은 일을 줄이고 관리를 군읍에 보내 농사와 누에치기를 권장하였다.(『삼국사기』 권19, 고구려본기, 평원왕 25년조)

위의 사료는 522년과 560년에 안장왕과 평원왕이 각각 졸본지역으로 가서 빈곤한 자에게 곡식을 내린다거나 옥수를 선별하여 풀어주는가 하면 평원왕이 583년경 군읍에 관리를 보내 농상을 권장했다는 내용이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안장왕 3년과 평원왕 2년·25년조의 주읍·주군·군읍이라는 기술에 대해서는 특정 지역을 가리킨다기보다 고구려 전역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보면서 고구려 후기의 지방행정단위로 주·군·읍이 존재하였고 장수왕대 새롭게 정복한 지역, 한강유역 등에는 군현이 설치되어 지방관이 파견되었는데, 기존의 정복지역에는 군현적 지배를 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서북·북·동북면에는 성 중심으로, 한강 이남의 남쪽으로는 군현 중심으로 지방통치를 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sup>94)</sup>

비록 관련 자료 부족이라는 사료상의 한계가 있긴 하지만 『삼국사기』 기사 가운데 ‘성주(城州)’라는 독특한 표현은 주로 고구려의 서북 방면에

93) 金樂起, 「경기 남부지역 소재 고구려 군현의 의미」, 『고구려연구』 20(2005).

94) 최희수, 앞의 논문, 103-105쪽.

위치한 성들이다. 고구려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은 주로 평야지대가 펼쳐져 있는 지역이다. 신라의 한주·삭주·명주를 기록하면서 고구려의 군현명을 전하는 지역은 대부분 한강 이남지역이다. 이와 함께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양원왕 7년(551)조에는 신라가 고구려의 10성을 공취했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여러 기사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고구려의 지역적 특성 및 중국이나 북방세력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평양 이북의 서북방지역에는 육살이나 도독이 파견되는 주요 큰 성에 성주라는 이름의 행정명을 붙여 이를 중심으로 한 군현제가 시행되고, 그 이남지역에는 그보다 비중이 덜한 도사가 파견되는 작은 성을 거점으로 하여 군현이 설치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삼국유사』 고려영답사조에는 승려 보덕이 전고려 용강현 사람으로 항상 평양성에 거주한다는 기사 내용이 있다.<sup>95)</sup> 이러한 몇몇 단편적인 기사를 통해서나마 고구려에서도 군현이 사용된 흔적을 엿볼 수 있다.<sup>96)</sup>

따라서 주군현제의 도입 시점은 처음 평양지역을 공취한 미천왕대 이후였을 것이다. 사료상에서는 미천왕대 이후 지방제도로서의 곡명과 촌명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다만 안장왕 11년(529)에 백제와 오곡에서 전투를 벌였다는 기사가 전해지는데<sup>97)</sup>, 이 오곡은 현재의 황해도 서흥면으로서 고구려의 오곡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sup>98)</sup> 그리고 습비곡처럼 고구려의 영역으로서 군현명이 전혀 붙지 않는 것도 눈에 띈다.<sup>99)</sup>

이처럼 곡(谷)이라는 용어는 고구려의 지방제도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멸망할 때까지 군현명과 함께 남아 있거나 주군현의 하부조직 또는 동격으로 그 명맥을 이어갔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제시한 안장왕대

95) 『三國遺事』 卷3, 塔像4, 高麗靈塔寺條.

96) 임기환은 『翰苑』 「高麗記」에 인용된 末若의 또 다른 이름인 郡頭라는 직명이 郡에 파견된 관원인 것으로 추정할 바 있다(앞의 논문, 155쪽). 그러나 郡頭는 분명히 武官으로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郡에 파견된 관원으로 보기는 어렵다. 고구려의 末若 또는 末客이 秦代에 처음 설치되어 漢代를 거쳐 唐代의 諸衛에 두어진 중국의 中郎將에 비견되고 이 중랑장의 임무가 宿衛侍直이므로 말약의 職事 역시 宮禁宿衛를 담당하는 무관이었을 것으로 보인다(노중국, 「高句麗律令에 관한 一試論」, 『동방학지』 21, 1979, 145쪽).

97) 『三國史記』 卷19, 高句麗本紀, 安臧王 11年 冬10月條.

98) 『三國史記』 卷35, 雜志4, 地理 漢州條. “五關郡 本高句麗五谷郡 景德王改名 今洞州 領縣…….”

99) 『三國史記』 卷37, 雜志4, 地理 高句麗 漢山州條.

와 평원왕대의 주읍·주군·군읍이란 표현은 바로 주군현제가 확립된 이후의 일을 가리키는 것이다. 즉, 고국원왕대를 거쳐 불교를 공식화하고 율령을 반포한 소수림왕대에 주군현제가 확립되었을 것이며, 광개토태왕과 장수왕대에는 한강 이남지역으로의 진출하면서 군과 현의 수가 좀 더 증가하였을 것이다. 『구당서』와 『신당서』의 고구려 영역편제 기사 내용인 '5부 176성'은 전국 5개의 부와 대성의 성주 및 군현이 존재한 그 외 성의 수인 것으로 보인다.

#### IV. 맺음말

이상으로 4-6세기 고구려의 지방운영체제와 관련하여 평양 이남 및 이동지역으로의 진출과 지방통치체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4-6세기 고구려의 영역확장 과정은 건국 초기부터 계속된 서북 및 동북 방면과 한군현 세력과 백제 등이 자리한 평양을 비롯한 대동강 이남 및 이동지역으로 진행되었다. 고구려 서북 및 동북 방면으로의 진출은 미천왕대에 이르기까지 그리 순탄치 못하였는데 고구려는 건국 초기부터 요동 및 요서지역을 놓고 후한 및 선비족과 공방을 벌이는 등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그러다가 광개토태왕이 즉위하면서 이들 지역에 대한 고구려의 영향력은 더욱 확대되었다.

평양 이동 및 이남지역으로의 진출은 미천왕대 낙랑군과 대방군이 고구려의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본격화된다. 그리하여 고구려는 당시 줄곧 백제의 영향권에 있었던 한강유역뿐 아니라 신라 및 가야까지 영향권에 둘 수 있는 남한강유역으로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고구려는 오랫동안 자국의 예속하에 두었던 동부여나 동해안 지역에 자리한 옥저 및 동예를 고구려의 영역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런데 고구려는 광개토태왕대나 장수왕대에 한강유역으로 진출하면 서도 이곳을 완전히 수중에 넣는다거나 남한강유역 전역을 차지하지는 않았다. 다만 강과 같은 물줄기나 산자락을 따라 주요 거점성을 마련하여 그곳을 기반으로 고구려의 영향권에 두었을 뿐이다. 특히 문자명왕대에 들어와서 고구려의 남경과 신라 및 백제의 변경이 변동되고 신라의 진흥왕 이후 고구려의 남경은 임진강 이북으로 밀려나게 된다.

다음으로 4-6세기 고구려의 지방통치는 대체로 내외평제와 3경 5부 및 성곡촌과 주군현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내외평제와 3경 5부제는 평양 천도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성곡촌제는 4세기 이전부터 시행되어 오다가 4세기 이후 고구려의 주요 지방통치체제로서 확대되었다. 그런데 역사상 고구려의 대중국 관계 및 영역확장 과정에서 볼 때 4·5세기대 지방통치체제가 2단계 내지 3단계로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었는지 매우 의문스럽다.

현재까지 4-5세기대 고구려의 지방지배체제는 전국이 5부로 나뉘고 주요 거점 성이나 큰 성 등에는 태수가, 그 밖의 성에는 일반적인 수의 수직이, 광범위한 지역에는 수사가, 곡에는 재가, 그 아래로 하급관리인 이직이, 그리고 군관인 당주 등이 임명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주는 고구려의 군관으로서 고구려 각 지방의 행정관을 겸직한 태수나 재와 달리 신라의 경우처럼 고구려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기 어려운 지역에 파견되어 특별히 군사적 임무를 맡은 지방관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6세기대에는 큰 성에 중국의 도독에 비견되는 육살이, 그 밖의 여러 성에 자사에 비견되는 처려(근지) 또는 도사가 파견되고 그 밑으로 요좌나 참좌가 있어 업무를 나누어 맡았으며, 위장군에 비견되는 대모달과 중랑장에 비견되는 말객 또는 말약이란 무관들도 파견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고구려 주군현제의 도입 및 시행 여부와 관련해서 고구려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평양 이북의 서북방지역에서는 큰 성에 마련된 성주를 중심으로 한 군현제가 시행되고 그 이남지역에서는 작은 성을 거점으로 하여 군현이 설치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군현제의 도입 시점은 평양지역을 공취한 미천왕대 이후이고, 고국원왕대와 불교를 공식화하고 율령을 반포한 소수림왕대에 주군현제가 확립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광개토태왕과 장수왕대에는 한강 이남지역으로 진출하면서 군현이 좀 더 확대되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사료

『大東地志』, 『大韓疆域考』, 『北史』, 『三國史記』, 『三國遺事』, 『三國志』, 『宋書』, 『隋書』, 『(新舊)唐書』, 『新增東國輿地勝覽』, 『梁書』, 『魏書』, 『日本書紀』, 『周書』, 『(增補)文獻備考』, 『晉書』, 『太平寰宇記』, 『翰苑』.  
「高慈墓誌」, 「廣開土太王陵碑」, 「中原高句麗碑」.

### 2. 논저

朝鮮古蹟硏究會, 『昭和十二年度古蹟調査報告』. 1938.  
朝鮮總督府, 『古蹟調査特別報告』 第1冊. 1919.  
\_\_\_\_\_, 『古蹟調査特別報告』 第4冊. 1927.  
\_\_\_\_\_, 『昭和七年度古蹟調査報告』 第1冊. 1933.  
  
고구려硏究會 편, 『중원고구려비 연구』. 학연문화사, 2000.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충주 탑평리 유적(중원경 추정지)』. 2009.  
국사편찬위원회 편, 『中國正史 朝鮮傳 譯註(1)』. 1987.  
\_\_\_\_\_, 『한국사 5-삼국의 정치와 사회 I-고구려』. 1996.  
金樂起, 「경기 남부지역 소재 고구려 군현의 의미」. 『고구려연구』 20, 2005.  
김문수, 『한수의 개념과 고구려 남평양의 고찰』. 구리문화원, 1995.  
김미경, 「고구려의 낙랑·대방지역 진출과 그 지배형태」. 『學林』 17, 1996.  
김영관, 「백제의 웅진천도 배경과 한성경영」. 『충북사학』 11·12합집, 2000.  
김정배, 「고구려와 신라의 영역문제」. 『한국사연구』 61·62집, 1988.  
김정학, 「서울근교의 백제유적」. 『향토서울』 39, 1981.  
김창호, 「중원고구려비의 건립연대」. 『고구려연구』 10, 2000.  
김태식, 「『三國史記』 地理志 高句麗條의 사료적 검토」. 『역사학보』 154, 1997.  
김현숙, 『고구려의 영역지배방식 연구』. 모시는사람들, 2005.  
노중국, 「高句麗律令에 關한 一試論」. 『동방학지』 21, 1979.  
박성현, 「6세기 초 고구려·신라의 화약과 정계」. 『역사와 현실』 76, 2010.  
박시형, 『廣開土王陵碑』. 푸른나무, 2007.  
박찬규, 「百濟 熊津初期 北境問題」. 『사학지』 24, 단국사학회, 1991.  
백담운, 『조선사회경제사』. 범우사, 1989.  
손영중, 『고구려사』.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0.  
서영일, 「6-7世紀 高句麗 南境 考察」. 『고구려연구』 11, 2001.  
성원식, 『『大東地志』의 ‘十郡’ 比定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신희권, 「풍납토성 발굴조사를 통한 하남위례성 고찰」. 『향토서울』 62호, 2002.



- 신형식, 『高句麗史』.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3.
- 양주문화원 편, 『양주-땅이름의 역사』 양주향토자료총서 제4집. 양주군·양주문화원, 2001.
- 오강원, 『(남북공동유적조사보고서) 고구려 일대 평양유적』 1. 고구려연구재단, 2005.
- \_\_\_\_\_, 『(남북공동유적조사보고서) 고구려 안학궁 조사 보고서』 2. 고구려연구재단, 2006.
- 오순제, 「하북위례성과 하남위례성의 고찰」. 『향토서울』 62, 2002.
- 오영찬, 『낙랑군 연구』. 사계절출판사, 2006.
- 이도학, 「永樂 6年 廣開土王의 南征과 國原城」. 『손보기 박사 정년기념 한국사학논총』, 지식산업사, 1988.
- \_\_\_\_\_, 『아차산의 역사와 문화유산』. 구리시·구리문화원, 1994.
- \_\_\_\_\_, 「고구려와 부여관계에 대한 재검토」. 『고구려의 역사와 대외관계』, 서경, 2006.
- 이인철, 「광개토태왕비를 통해 본 고구려의 남방경영」. 『광개토태왕비 연구 100년』, 1999.
- 이용범, 「고구려의 성장과 철」. 『韓滿交流史 研究』, 동화출판공사, 1989.
- 이종욱, 「고구려 초기의 지방통치제도」. 『역사학보』 94·95합집, 1982.
- 여호규, 「1-4세기 고구려 정치체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 임기환, 「고구려 집권체제 성립과정의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 \_\_\_\_\_, 「고구려·신라의 한강유역 경영과 서울」. 『서울학연구』 XVIII, 2002.
- \_\_\_\_\_, 「고구려 평양 도성의 정치적 성격」. 『한국사연구』 137, 2007.
- 임영진, 「풍납토성의 역사적 의미와 연구과제」. 『동북아시아 속의 풍납토성』, 제12회 한성백제문화제 국제학술회의, 2012.
- 王志高, 「風納土城의 세 가지 문제에 대한 試論」. 『동북아시아 속의 풍납토성』, 2012.
- 장준식, 「국원성의 설치」. 『신라중원경연구』, 학연문화사, 1988.
- 전주농, 『文化遺産』. 1962-1963.
- 조우연, 「4-5세기 고구려 정치체제」. 『고구려연구』 28, 2007.
- 조효식, 「고고자료로 본 5세기 말 고구려와 신라의 국경」. 『백제와 주변세계』, 진인진, 2012.
- 차용걸, 「위례성과 한성에 대하여(I)」. 『향토서울』 39, 1981.
- 최몽룡·권오영, 「고고학적 자료를 통해 본 백제 초기의 영역고찰」. 『천관우 선생 환역기념 한국사학논총』, 1985.
- 최승택, 「고구려 남부 부수도로서의 위성방위체계」. 『조선고고연구』 4호, 2000.
- 최종택, 「고고학상으로 본 고구려의 한강유역 진출과 백제」. 『백제연구』 28, 1998.

최희수, 「평양 천도 이후의 고구려 지방통치체도」.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_\_\_\_\_, 「고구려 지방통치 운영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한국고대사회연구소 편, 『역주한국고대금석문 -제1권 고구려·백제·낙랑 편-』.  
1992.

황수영 편저, 『韓國金石遺文』. 일지사, 1976.

田村晃一, 『樂浪と高句麗の考古學』. 同成社, 2001.

梅原末治·藤田亮策, 『朝鮮古代文化綜鑑』 3. 1959.

## 국 문 요 약

4-6세기 고구려의 평양 이동 및 이남지역으로의 진출은 미천왕대 낙랑군과 대방군이 고구려의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본격화된다. 그리하여 고구려는 고국원왕대에 백제와 전쟁을 벌이게 되고 이 과정에서 고구려와 백제의 관계는 최악에 이른다. 이후 고구려의 광개토태왕은 즉위하자마자 백제의 한성으로 진군하여 관미성을 비롯한 백제의 여러 성을 수중에 넣는 등 대승을 거둔다. 고구려는 그 당시 줄곧 백제의 영향권에 있었던 한강유역뿐 아니라 신라 및 가야까지 영향권에 둘 수 있는 남한강유역으로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그러나 고구려는 한강유역을 완전히 수중에 넣는다거나 남한강유역 전역을 차지하지는 않았다. 다만 강과 같은 물줄기나 산자락을 따라 주요 거점성을 마련하여 그곳을 기반으로 고구려의 영향권에 두었을 뿐이다. 그러나 신라 진흥왕 이후에는 고구려의 남경이 임진강 이북으로 밀려나게 된다.

다음으로 4-6세기 고구려의 지방통치는 대체로 내외평제와 3경 5부 및 성곡촌제와 주군현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3경과 5부, 내평과 외평은 평양 천도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고, 성곡촌제는 4세기 이전부터 시행되어오다가 4세기 이후 고구려의 주요 지방통치체제로서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고구려 주군현제의 도입 및 시행 여부와 관련하여 고구려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평양 이북의 서북방지역에서는 성주를 중심으로 한 군현제가 시행되고, 그 이남지역에서는 성을 거점으로 하여 군현이 설치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군현제의 도입 시점은 평양지역을 공취한 미천왕대 이후이고 고국원왕대를 거쳐 불교를 공식화하고 율령을 반포한 소수림왕대에 주군현제가 확립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광개토태왕과 장수왕대에는 한강 이남지역으로 진출하면서 이를 좀 더 확대했을 것이다.

**투고일** 2014. 3. 14.

**심사일** 2014. 5. 1.

**게재 확정일** 2014. 6. 3.

**주제어(keyword)** 고구려(Goguryeo), 평양(Pyongyang), 광개토태왕(the Great King Gwanggaeto), 성곡촌제(the system of the castle, valley, village), 주군현제(the system of the state, county, district)

### A Local Operation's System in Goguryeo from Fourth to Sixth Century

**Kim, Sun-sook**

A process of territorial expansion in Goguryeo from fourth to sixth century had been advanced at the south and east areas of the Pyeongyang being situated the power of Chinese district and Baekje as well as the northwest and northeast being continued from the establishment of a state. Then the Goguryeo had gone to war against the Baekje, in this process both nations extended to the worst.

By the way, in spite of the Goguryeo had made an attack on the capital of the Baekje, and captured or put to the Baekje's King death, it had not occupied perfectly the basin of the Han River. Merely, the Goguryeo had established a major stronghold along the stream or mountain range like river, and just put in the influencing power of the Goguryeo being founded on there.

Among the Goguryeo's local government system from fourth to sixth century, the system of the castle · valley · village had been extended on the Goguryeo's local government system after the fourth century coming into force since the fourth century. The other side, the system of the state · county · district had been gradually extended introducing in obtaining the Pyeongyang, and this had been a little more enlarged after advancing to the area south of the Han River.